

최저임금 1만원 쟁취! 범국민 서명

비정규직노동자 평균근속 1.7년
 평생 20번 일자리를 옮기며 일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해고, 어렵게 구한 회사에서 죽어라 일하지만
월급은 최/저/임/금!
밥 한 끼도 제대로 사먹기 힘든 최저임금.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이 된 노동자 수 500만 명.
 노동조합 없이는 시키는 대로 일하고 주는 대로 받는 현실!



민주노총이 바꾸겠습니다.
 500만 최저임금 노동자들과 함께 부당한 현실을 바꾸겠습니다.
 500만 서명으로 최저임금 노동자 500만 명을 살립니다.

“인간다운 삶을 위해!
 민주노총과 함께 최저임금 시급 1만원,
 월급 200만원 쟁취합시다!”



*서명지는 박근혜대통령에게 전달합니다.

번호	이름	주소	연락처	서명
1				
2				
3				
4				
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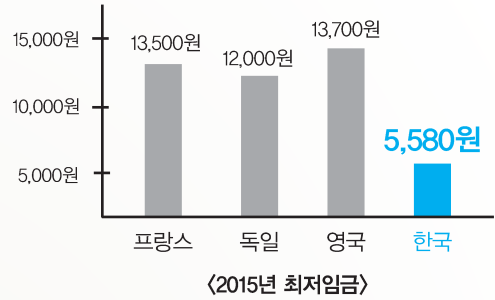
서울 중구 정동 22번지 경향신문사 건물 14층(100-702)

서명지 보낼 곳 : 팩스 (02)2635-1134 / E-mail : kctu@hanmail.net / 지역, 산별 노동조합 사무실

노동자 · 서민 살리는 최저임금 1만원!

한 끼도 맘 놓고 먹기 힘든 최/저/임/금

최저임금 5,580원.. 최저임금이 기준임금이 되고 최고임금이 된 현실.
노동자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 저임금을 받습니다.
최저임금이 너무 낮아 장시간 노동으로 임금을 보충합니다.
연평균 노동시간이 OECD국가 중 2위로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재벌들은 돈잔치! 서민 주머니 터는 박근혜정부

재벌에게는 갖가지 혜택으로 세금을 인하여 주며
부족한 세수를 서민에게 전가하는 박근혜정부!
재벌에게 세금을!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1만원을!

재벌 법인세 감면 (연간)	5조원
전체기업 사내유보금	1천조원
담뱃값 인상(추가세수)	2조 8천억원
연말정산, 세금폭탄!	9300억여원

최저임금 1만원, 월급 200만원으로!

대출 이자 갚고 월세 내며 한 달을 살다보면 손에 남는 건 빚... 저축은 꿈도 못 꾸는 서민들에게 월급 200만원도 많은 돈이 아닙니다.
한 가족이 먹고 살기 위한 최소한의 생계비 200만원이 되려면 시급 10,000원이 필요합니다.
최저임금 1만원, 월급 200만원 당당하게 요구합시다!

최저임금 인상은 세계적 추세

뉴질랜드,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등은 1만원이 넘고
독일, 프랑스, 영국은 우리나라의 두 배가 넘습니다.
미국도 최저임금 인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의회 연설

“만일 당신이 연봉 15,000달러(월140만원)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GO TRY IT!
당신이 최저임금으로 한번 살아보라!
미국 최저임금을 현재의 시간당 7달러 25센트(8,000원)에서 10달러 10센트(11,000원)로 높여야 한다.”

영세상인과 함께 살기 위한 길입니다

신규창업 100명 중 85명이 3년 안에 문을 닫습니다. 희망퇴직 · 권고사직으로 밀려난 이들이 가게를 차리지만 빚만 지고 폐업합니다.
반듯한 일자리가 있다면 위험한 창업대신 일자리를 찾게 될 것입니다. 또한 프랜차이즈 가맹비용을 낮추고 카드수수료 인하,
상가 월 임대료 제한, 권리금 보장 등의 조치가 함께 진행된다면 영세상인들이 살아갈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최저임금 1만원에 담긴 우리의 요구입니다.



500만 서명운동에 함께 해요!

- 직장 동료와 가족에게 최저임금 1만원 서명을 받습니다.
- 주변에 있는 하청노동자, 경비노동자, 청소노동자 등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서명을 받습니다.
- 온라인 서명도 받습니다. <http://nodong.org/up10000>
- SNS로 지인들에게 알립니다.